



# 로덱나무그늘교회

2022년 교회 표어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교회 (요일 4:18)]

- 2022. 03. 06 사순절 첫째 주일
- 오전 11시
- 온라인 ZOOM

# 온라인 예배자를 위한 안내

1. 출석 확인을 위해서,  
ZOOM 이름을 교회 닉네임으로 바꿔주세요!
2. 신앙고백, 성서봉독과 공동축도 시간에는  
마이크를 켜고 한 목소리로 천천히 낭독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는  
온/오프라인 사이에 딜레이가 있어서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3. 예배 후에 온라인에서도 나눔시간이 있으니  
바로 나가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부름  
(사회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신앙고백  
(다 같이)

## [로템나무그늘교회 신앙고백문]

우리는 온 세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은혜로 새로운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한 매 순간 우리의 호흡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 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환대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를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믿으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성취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습니다.

아멘

찬양  
(다 같이)

# (통일 221)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

천국

I. D. Ogdon, 1877

I've cast my heavy burdens down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제 22:1)

THE HEALING WATERS: 14.10.14.10.REF.

P. P. Billhorn(1865-1936)

보통으로

1. 나 가나안땅 귀한성에 들어가려고내 무거운짐 벗어버 렸 네  
2. 그 불과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니나 가는길이형통하 겠 네  
3. 내 주린영혼만나로써 먹여주시니그 양식내게 생명되 겠 네

죄 중에다시방황할일 전혀없으니 저 생명시냇가에살 겠 네  
그 요단강을내가지금 건넌후에는저 생명시냇가에살 겠 네  
이 후로생명양식주와 함께먹으며 저 생명시냇가에살 겠 네

후렴

길이살 겠네 나 길이살 겠네 저 생명시냇가에살 겠 네

길이살 겠네 나 길이살 겠네 저 생명시냇가에살 겠 네(살 겠네)

쉬운 기타코드(capo=1st) Ab→G Db→C Bb7→A7 Eb7→D7

[회개의 기도, 존 웨슬리]

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선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풍성한 사랑하심을 따라 우리의 죄를 제거하소서.

주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은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받아 마땅한 징벌로 부터 구해 주소서.

오! 모든 어둠의 행실에서 구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더러움을 씻기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를 때  
정결한 마음과 생각으로  
오직 한 분이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게 하소서.

아멘

[출애굽기 13장 16-22절]

16. “이것을 각자의 손에 감은 표나 이마 위에 붙인 표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내셨기 때문이다.”

17.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다. 그러나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서 가는 것이 가장 가까운데도, 하나님은 백성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나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18.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홍해로 가는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은 대열을 지어 이집트 땅에서 올라왔다.

19. 모세는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 때에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골을 가지고 나가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20. 그들은 숙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21. 주님께서서는, 그들이 밤낮으로 행군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앞서 가시며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 길을 비추어 주셨다.

22.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다.

설교  
(구현우 목사님)

## [ 광야와 벽장 ]

헌금

헌금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계좌로 닉네임과 헌금 종류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약정, 주정, 십일조, 선교, 건축, 사랑)

카카오뱅크 3333 21 9744006

축도

- 구현우 목사님-

1.

코로나 바이러스의 계속되는 확산세로,  
3월은 **전면 온라인예배**로 진행됩니다.

2.

예배 후 월례회와 소그룹 나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도 바로 나가지 마시고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3.

3월 생일자는

앨런 (2일)

님 입니다.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파송

##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퀴어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미움 다툼 혐오 차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